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2018/01/21~2018/02/11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교는 수세인트마리에 있으며 규모는 조금 작지만 시설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도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은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reading 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레벨 테스트를 한 뒤에 분반을 합니다.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희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수업은 지루하지 않게 가끔 수업과 관련된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과제 또한 생각보다 매우 가벼운 숙제 정도였습니다.
Activity	겨울의 수세인트마리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눈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스키, 스노잉 슈잉, 말(개) 썰매 등을 하였고 스키와 스노잉 슈잉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가족 분들이 빌려주시기

	도 하고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수세인트마리는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춥습니다. 보통 -20도 까지 갔으며 장갑을 끼지 않거나 핫팩이 없으면 더 춥습니다. 부츠 같은 것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딱히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늦게 들어가는 경우, 홈스테이 분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른 규칙 같은 것은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샤워를 10분만에 해야한다고 하는 등 규칙이 많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 저는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주로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것을 싸줍니다. 처음엔 너무 맛이 없어서 깜짝 놀랐지만 몇 일 지나면 익숙해 집니다. 라면과 한국음식을 싸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터미널에서 맛있는 것을 사먹기도 했는데 주로 스테이크나 초밥을 먹었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교통	학교를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항상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는 평 일에는 30분마다 다녔으며 주말에는 1시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눈이 와도 막히지 않고 제시간에 도착하였으며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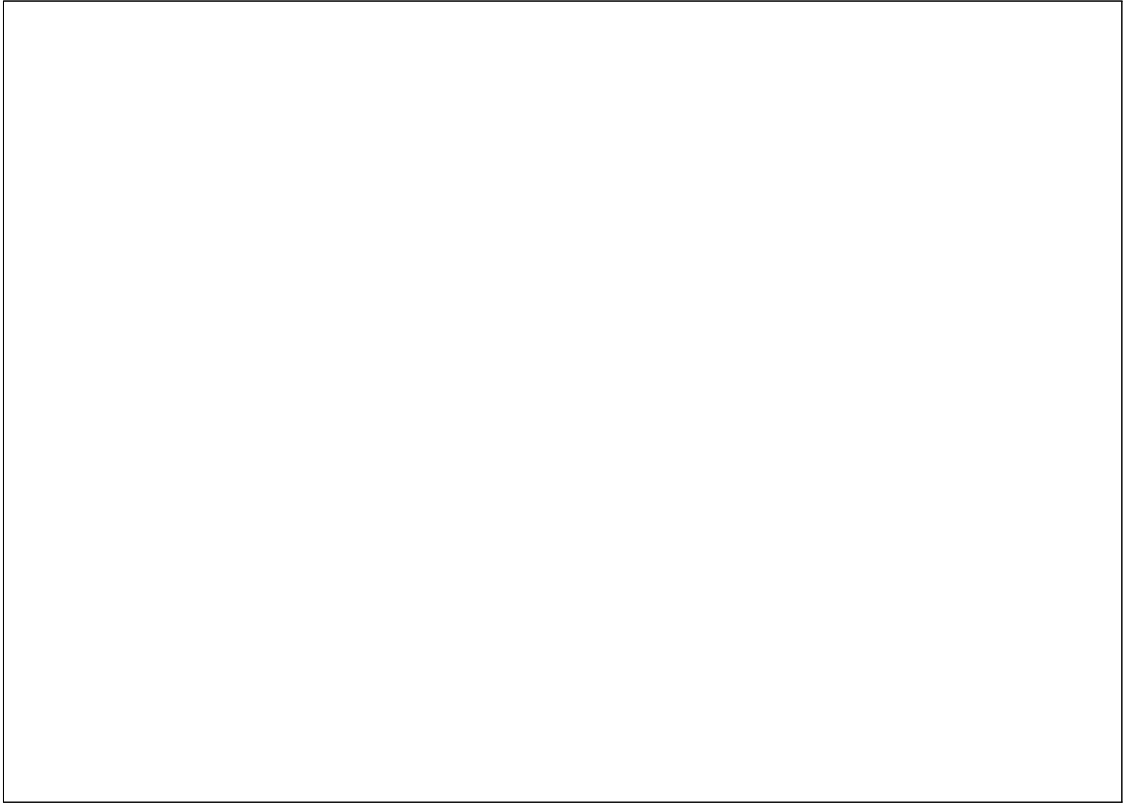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약160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5만원	
쇼핑	50만원	면세품 포함
합계	약 22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는 꼭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운 좋게 날씨가 좋았던 것이지 잘 못하면 -29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꼭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낸 뒤 선물 같은 것을 사가시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타지에서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들, 외국인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 사비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갈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알파카 농장



스모어 파티



말 설매



다운 타운 구경



스키장에서 외국인 선생님이랑



복지관에서 봉사활동